

모바일 RPG 게임 신작 쏟아진다



스마트폰의 성능이 발전하면서 PC에서나 가능하던 액션역할수행게임(RPG)의 경쟁이 모바일에서도 치열해지고 있다. 국내 주요 게임사들이 2월부터 대작 모바일 RPG를 선보인다. (왼쪽 위로부터 시계방향)넷마블게임즈의 블록버스터급 모바일 액션RPG ‘레이븐’, 그리스·로마신화를 재해석한 넥슨의 ‘타이탄’, 300여 종의 영웅 캐릭터가 등장하는 NHN엔터테인먼트의 ‘히어로즈 킹덤: 챔피언스 워’.

모바일게임 왕좌, 올해도 넷마블?

차세대 모바일 액션역할수행게임(RPG)경쟁이 뜨겁다. 게임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게임사는 2월부터 대작 모바일 RPG를 잇달아 선보일 계획이다. RPG는 구갈플레이 기준 게임 부문 매출 순위 상위권 10개 가운데 5개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인기 장르다. 새롭게 경쟁에 나서는 게임 중 어떤 게임이 유저들의 선택을 받을 지 관심이 모아진다.

●넷마블 ‘레이븐’ 2월 출시

먼저 모바일게임 최강자이자 ‘몬스터걸들이기’와 ‘세븐나이츠’ 등 인기 RPG를 다수 보유한 넷마블게임즈가 신작을 내놓는다. 넷마블게임즈는 모바일 대작 RPG ‘레이븐’을 2월 말 출시할 계획이다. 에스티플레이가 제작한 레이븐은 고품질 그래픽과 PC온라인 게임 수준의 방대한 콘텐츠를 갖춘 초대형 블록버스터급 모바일 액션RPG다. 지난해 6월 기자간담회를 통해 한편의 3D 판타지 영화 같은 영상과 수준 높은 게임성을 선보여 주목받은 바 있다. 특히 ‘이야기 모드’와 ‘탐험 모드’, ‘레이드 모드’, ‘개인간 대전(PvP)

넷마블게임즈, 내달 ‘레이븐’ 서비스 ‘크로노블레이드’도 1분기 출시 준비

넥슨은 액션 RPG ‘타이탄’으로 반격 NHN엔터 ‘히어로즈 킹덤’ 3월 선포

모드’, ‘길드’ 등 대규모 콘텐츠와 무기별 고유의 애니메이션을 적용한 수준 높은 액션으로 모바일RPG의 새 장을 열 게임으로 기대를 모았다. 넷마블게임즈는 게임 출시를 앞두고 이용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영상과 이미지 등 다양한 콘텐츠를 순차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넷마블은 레이븐에 이어 또 하나의 대작 모바일 RPG ‘크로노블레이드’를 1분기 중 출시할 예정이다.

●넥슨과 NHN엔터도 신작 경쟁

경쟁사들도 대작 모바일 액션RPG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넥슨은 모바일 액션RPG ‘타이탄’의 안드로이드 버전을 2월 중 내놓을 예정이다. 최근 비공개 테스트를 진행했다. 넥슨의 새해 첫 모바일 신작인 ‘타이탄’은 그리스·로마 신화를 재해석 한 탄탄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한 액션RPG다. 화려한 액션을 구현할 수 있는 ‘스킬카드’ 시스템과 다양한 게임모드, 코스튬 요소 등 풍부한 콘텐츠를 갖췄다.

NHN엔터테인먼트는 3월 모바일 액션 RPG ‘히어로즈 킹덤: 챔피언스 워’를 첫 세계 동시 출시 예정이다. 21일부터 사전등록을 시작했다. 엠플러스 소프트웨어 개발한 히어로즈 킹덤은 이용자가 직접 키우는 ‘캐슬’을 바탕으로 300여 종의 개성 넘치는 영웅 캐릭터들이 등장하는 모바일 액션 RPG다. 실시간 전투와 색다른 유저 간 악탈전을 즐길 수 있다. 또 유저들이 직접 생산하고 제작한 다양한 종류의 아이템을 영웅들에게 장착하는 등 캐릭터 육성의 재미도 있다. 아울러 영웅들을 ‘난투전’에 투입시켜 여러 이용자들이 실시간 전투를 벌일 수도 있다.

김영근 기자 dionys@donga.com 트위터@kimyke76

SKT ‘3밴드 LTE-A’ 마케팅 작전 개시

갤노트4 S-LTE 공시지원금 최대 30만원 band LTE 팩 무료제공 등 프로모션 진행

SK텔레콤이 삼성전자와 공동으로 LTE보다 4배 빠른 ‘3밴드 LTE-A’ 마케팅에 나선다. 최근 법원으로부터 ‘세계 최초 상용화 광고’를 금지하라는 결정을 받는 등의 논란에서 벗어나 차별화된 가격과 서비스로 시장을 주도하겠다는 전략이다.

SK텔레콤은 ‘갤럭시노트4 S-LTE’ 구매 고객을 포함한 삼성전자 단말기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마케팅을 내달 24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먼저 갤럭시노트4 S-LTE 공시지원금을 기존 10만원에서 최대 상한금액인 30만원(LTE 100 요금제 기준)까지 높인다. 최대 지원금 30만원을 받을 경우 65만7000원에 제품을 손에 짚 수 있다. 추가로 유통망 지원금을 받는 것도 가능하다.

SK텔레콤은 또 ‘band LTE팩’을 가입 요금제와 상관없이 갤럭시노트4 S-LTE 구입 고객 전원에게 제공한다. 클라우드 게임과 동영상 멀티미디어, 실시간 지상파 방송 등의 콘텐츠를 데이터 비용 부담 없이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특화 서비스 패키지다. 프로모션 기간 동안 갤럭시노트4 S-LTE를 구매하는 고객은 3월15일까지 T멤버십 온라인몰 ‘초콜릿’에서 ‘band LTE 팩’을 신청해 4만원 상당의 혜택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단 T멤버십 할인 한도 2만 포인트가 차감된다. SK텔레콤은 이 밖에도 기어S 반값 프로모션 등을 진행한다.

한편 SK텔레콤은 23일 법원으로부터 ‘3밴드 LTE-A 세계 최초 상용화’ 광고를 금지하라는 결정을 받았다. SK텔레콤은 이에 대해 “해당광고 게재는 우선 중단할 것이다”면서도 “이번 판결은 확정판결도 아니고 충분한 반론의 기회도 주어지지 않았다. 이의신청 및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김영근 기자



LG전자가 30일 출시 예정인 G플렉스2의 휘어진 옆모습. LTE보다 4배 빠른 ‘3밴드 LTE-A’를 지원하는 한편 2세대 커브드 스마트폰으로도 주목받는 제품이다. 곡면을 따라 드래그하면 시간, 날씨, 메시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도 눈길을 끈다.

직접 만져본 ‘G플렉스2’, 곡선이 더 sexy해졌다

LG전자 첫 ‘3밴드 LTE-A’ 지원 스마트폰 날렵한 디자인·가벼워진 무게…30일 출시

“매끄럽다.”

LG전자가 30일 출시 예정인 ‘G플렉스2’의 첫 인상이다. G플렉스2는 LG전자의 스마트폰 중 최초로 LTE보다 4배 빠른 ‘3밴드 LTE-A’를 지원하는 제품이면서 2세대 커브드 스마트폰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22일 서울 여의도 사옥에서 열린 제품발표회에서 직접 G플렉스2를 손에 쥐어봤다. 제품의 첫 느낌은 ‘잘 빠졌다’였다. LG전자 관계자가 발표회에서 언급한 것처럼 최신 스포츠카를 보는 듯 날렵했다. 단순히 스마트폰이 휘어 있어 서가 아니다. 전면(700R)과 후면(상하 650R·좌우 400R)은 물론 측면 중심을 지나는 메탈릭 라인(550R)의 곡률을 모두 달리해 날카로운 느낌을 더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최법석 디자이너도 “곡선은 미래 지향적 디자인 키워드”라며

G플렉스2의 디자인을 칭찬했다. 가벼운 무게도 제품의 날렵함을 더해줬다. G플렉스2의 무게는 전작보다 15% 정도 줄어든 152g다.

편의 기능을 잘 갖췄다는 점도 G플렉스2의 강점이다. 특히 화면이 꺼진 상태에서 곡면을 따라 드래그하면 시간과 날씨, 메시지 수신 여부, 부재중 전화 같은 정보를 보여주는 기능은 평소 스마트폰을 자주 확인하는 사용자에게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셀카족을 위한 카메라 편의 기능도 업그레이드 됐다. 주먹을 쥐었다 펴면 3초 후 자동 촬영하는 기능에 그 상태에서 스마트폰을 내리면 곧바로 사진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까지 더했다. 이 밖에 ‘G플렉스2’는 퀄컴의 64비트 옥타코어 칩셋인 ‘스냅드래곤 810’을 탑재하는 등 최상의 구동성능을 갖췄다. 다만 디스플레이가 QHD 해상도가 아닌 풀HD인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한편 LG전자는 G플렉스2를 이달 30일 국내 이동통신 3사를 통해 공식 출시할 예정이다. 가격은 80만원대 후반.

김영근 기자

잡코리아, 과장광고로 제재

이력서 보유량 1위? 수정까지 합한 횟수
공정위,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취업포털 사이트 잡코리아가 과장광고로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잡코리아는 2010년부터 2014년 2월까지 자사 홈페이지에 ‘랭킹순위 선호도, 인지도, 신뢰도 부동의 1위 잡코리아’, ‘월간 최신 이력서 보유량 1위 61만5131건’ 등 모든 기준에서 경쟁사보다 우위에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하지만 이는 부당 광고행위로 나타났다. 설문조사 특성상 업체나 시기별로 시장별 1위 사업자가 수시로 바뀔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공정위 조사 결과에서 잡코리아는 일부 설문조사에서만 1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문자 수의 경우 트래픽 분석사이트인 랭키닷컴에서는 잡코리아가 1위였지만 경쟁 사이트인 코리아 클릭에서는 2위로 평가됐다. ‘최신 이력서 보유량 1위’라고 광고한 부분도 사실과 달랐다. 잡코리아가 자체 조사한 수치인 61만5131건은 한 달 간 이력서 수정이 이뤄진 횟수였다. 2013년 5월 기준으로 열람 가능한 이력서는 28만건이었다.

잡코리아는 공정위 조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해 2월 해당 광고를 전면 중단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미 광고를 접한 소비자에게 준 영향을 감안해 공표명령을 포함한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

양형모 기자 ranbi@donga.com 트위터 @ranbi361

유독 잘 쉬는 목소리, 성대 건강 ‘빨간불’

쉰 목소리, 음성질환·후두암 등 가능성도
후두내시경으로 성대 건강상태 체크해야
발성습관 원인일 땐 음성언어치료 효과적

유독 목이 잘 쉬는 사람이 있다. 여러 명이 어울려 노래방이나 야구장을 찾아 소리를 질렀는데, 다음날 혼자만 목이 쉬어있다. 이런 사람은 성대 건강이 안 좋을 가능성이 높다. 음성언어 치료전문 프라나이비인후과 안철민 원장은 “성대의 건강 상태는 목소리를 결정지를 뿐 아니라 음성질환을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바로미터다”면서 “특히 남들보다 더 쉽게 잘 쉬는 목소리는 성대의 건강 상태에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신호이므로 적극적인 치료가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목소리가 쉬는 이유는 크게 3가지다. 먼저 성대 기능이 약한 경우다. 목소리는 부드러운 점막과 근육으로 이루어진 양측 성대가 잘 접촉해 균일한 진동이 일어나면서 생긴다. 그런데 이러한 성대에 구조적인 변화가 있거나 기능이 약해지면 마찰 면적과 진동에 이상이 생겨 음성변화가 나타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소리를 내는 방법, 즉 발성이 잘못된 경우다. 평소 말을 할 때 고함을 치듯 악을 쓰거나 자신의 음역대에 맞지 않게 너무 높은 소리를 내는 경우, 자신도 모르게 성대 근육에 힘을 주면서 말하는 습관 등이 대표적인 예다. 이와 같은 잘못된 발성습관은 성대의 피로도를 높여

작은 자극에도 성대를 쉽게 손상시켜 쉰 목소리를 내게 만든다.

마지막으로 질병으로 인한 경우다. 가장 흔한 것은 감기 바이러스로 인한 급성 후두염이다. 또 목소리 남용으로 인해 성대결절, 성대폴립 등의 음성질환이 생겼거나 역류성 위산이 식도를 거슬러 성대를 자극하는 역류성 식도염도 쉰 목소리를 유발할 수 있다. 이외에도 알레르기, 갑상선 질환, 후두의 외상, 신경학적 원인 등도 원인이 될 수 있다.

●쉰 목소리, 음성질환·암 신호 가능성

쉰 목소리는 음성질환은 물론 후두암, 인후암 등의 증상일 수도 있다. 따라서 남들보다 목소리가 쉽게, 자주 쉰다면 반드시 후두내시경을 통해 객관적인 성대의 건강 상태를 체크한 후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한다. 만약 성대에 구조적, 기능적인 문제가 있다면 성대 보톡스나 필러와 같은 물리적인 치료 1~2회 만으로도 개선이 가능하다. 반면 잘못된 발성습관이 원인이라면 1개월 정도의 음성언어치료가 효과적이다. 음성언어치료는 이비인후과 전문의를 통해 발성기관을 검사해 문제점을 파악한 후 언어치료사를 통해 호흡부터 발성까지 전반적인 과정을 훈련하는 것이다.

안철민 원장은 “쉰 목소리가 2주 이상 지속되고, 목에 통증이나 이물감 등 이상 증상이 있다면 반드시 이비인후과를 찾아 적극적인 치료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학 기자 ajapto@donga.com 트위터@ajapto